

## 百濟 漢城時代の 瓦當에 대하여

井 內 功

### 1. 序 言

昨年(1989) 8月 9日, 최근 發掘調査時에 發見된 백제 한성時代의 와당을 見學키 위해 단 하루 뿐인 바쁜 豫定으로 서울에 갔다. 그 날 가게된 것은 당시 發掘團長이신 前서울대학교 교수 金元龍박사께 연락하여 백제 한성時代의 와당을 見學할 수 있도록 부탁하여 두었기 때문이다. 서울大學校는 서울의 冠岳區에 위치하는데, 市內로부터 멀리 떨어진 山에 둘러 쌓인 廣大한 캠퍼스를 가지고 있다. 현재의 博物館은 四층건물인 圖書館의 제일 윗층에 자리하고 있으나 곧 新館으로 移轉하게 되어 있어서 거의 모든 資料들은 이미 포장되어 있었다. 내가 見學하고자 한 와당은 夢村土城跡에서 出土된 것으로서 金博士로부터 연락을 받은 박물관 직원인 李仁淑女史가 그때까지 포장하지 않고 놔두었다. 女史의 말에 의하면 한번 포장하면 向後 1年餘동안 포장을 풀수 없다고 하기에 그날의 와당 見學은 필자에게는 참으로 多幸한 일이었다. 見學中에 와당의 拓本을 뜯 수 있었는데, 外國人으로서의 필자가 처음이었다니 참으로 幸運의 旅行이었다.

### 2. 漢城時代의 瓦當

#### 1) 夢村土城出土의 瓦當

이번에 필자가 짧은 시간이었음에도 자세히 관찰할 수 있던 資料는 서울特別市 松坡區 芳莢洞의 백제 夢村土城跡發掘調査時에 出土된 二種類의 圓瓦當이다(圖 1).

먼저 土城의 東南地區에서 出土된 와당에 대하여 언급하기로 한다. 그중 1種은 上部에 해당되는 部分이 결손된 대략 ¼정도의 破片이다(圖 2). 직경 19.2cm(復元)의 비교적 큰 圓瓦當으로 와당面에 蓮華文이 보인다. 覆輪으로 둘러싸인 중심부분은 破損때문에 전혀 알 수가 없다. 內區에는 無子葉의 孤立性 菱形花瓣이 6枚(復原) 보이는데, 花瓣은 陽刻으로 表現되어 있다. 外區에는 아무런 장식도 없다. 外周線은 현저하게 突出하여 그 높이는 5.5cm에 달한다. 그밖의 面은 닳아 整形되어 있으나, 內面全體에 橫走하는 布目文이 보인다. 와당의 후면도 닳아서 整形된 듯 凹凸이 없다. 胎土에는 小砂粒이 섞여있으며, 色調는 거스스레한 靑색이며 비교적 단단하게 燒成되었다(圖 3·4).<sup>(1)</sup> 1983년에 土城의 東北地區를 調査할 때 第1號住居跡의 地下第5層에서 이 와당과

1) 서울大學校博物館, 『夢村土城(東南地區發掘調査報告)』, 圖面94-② 사진 87, 1988年 12月.

同范에 의한 것으로 생각되는 小破片이 한 개 出土되었는데, 赤褐色을 띠었으며 軟質이었다고 한다.<sup>(2)</sup>

여기서 이러한 端丸瓦類의 製作技法에 대하여 생각해 보기로 한다.

① 먼저 幅이 넓은 瓦型의 瓦當面을 윗쪽으로 향하게 한다.

② 瓦型과 직경이 같은 粘土円盤을 瓦型 위에 얹어 손으로 눌러 密着시킨다(이 粘土円盤이 瓦當이 된다).

③ 와형과 粘土円盤과의 密着體를 미리 준비한 四角의 粘土板(端丸瓦의 本葺用 丸瓦部가 된다)으로 말아 붙여서 円筒體로 만든다. 이 때에 壓迫을 加하여 兩者를 잘 接着시킨다.

④ 이 円筒體가 완전히 마르기 전에 粘土板으로 만든 円筒形에서 불필요한 부분을 잘라 버린 다음 瓦型을 땀다.

⑤ 끝으로 와당 뒷면을 잘 다듬어서 整形한다.

以上이 필자가 推察해 본 端丸瓦의 製作技法이지만 아직까지 이러한 瓦의 製作技法에 대해서 말한 사람은 없는 듯하다(圖 5).

다른 1鍾은 土城跡의 東北地區의 遺物散布地에서 出土된 円瓦當이다(圖 6·7). 직경 11cm 크기의 蓮華文 와당으로 中心部에 一珠點을 두고 거기에 覆輪을 둘러서 中房으로 한 것이다. 그 中房 주위로 끝이 둥근 孤立性의 單子葉 花瓣이 6枚 보인다. 瓣端은 서로 연결되는데 모두 陽刻線으로 되어 있다. 外區는 없으며, 外周緣은 破損이 심하여서 확실치 않다.

裏面을 보면 와당의 缺損部가 上部임을 알 수 있다. 裏面殘存部의 周緣을 따라서 土堤狀의 隆起帶가 돌려져 있는데, 이것은 燒成前에 와당과 接着시켰던 円筒狀 粘土에서 불필요한 부분을 잘라 버린 자국이다. 이 隆起帶의 안쪽은 닳아서 조금 낮게 整形되어 있으나 中央部는 整形되어 있지는 않다.<sup>(3)</sup>

## 2) 石村洞4號墳出土의 瓦當

以上 필자가 관찰한 円와당 以外에 漢城時代의 고분에서 出土된 것에 관하여 잠시 살펴 보기로 한다.

夢村土城이 있는 松坡洞의 南西部에 隣接한 石村洞 古墳群중 第4號墳은 1974年과 1984年の 發掘調査 結果, 一邊이 약30m, 現高 2.24m의 3段築成의 方形基壇式 積石塚으로 橫穴式 石室의 玄室이 있다. 數點의 円瓦當 破片은 封土속에서 發見되었는데, 이와같이 階段狀으로 構築한 狀態의 封土속에서 瓦當片이 發見된 일은 輯安에 있는 高구려의 大王陵이나 將軍塚 등과 같이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出土된 古瓦中에 거의 半정도크기의 것이 있으므로 특히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圖 8·9).

2) 서울特別市·서울大學校博物館, 『夢村土城—東北地區發掘調査報告』, pp. 70~71, 도면17-⑥ 사진41, 1987年 7月.

3) 2)와 同, p. 205, 도면 58-② 사진 154.

瓦當의 직경은 13.5cm(復原)로서 두께는 얇다. 瓦當文樣은 中央部에 角形비슷한 陽刻의 突起가 있고 이로부터 四方에 陽線을 내어 瓦當面을 平等한 四分區로 나누었다. 이 陽線의 末端部는 각각 짧은 橫線과 交叉시켜 十字形을 形成한다. 각각의 區劃內에는 직경 약3cm의 圓輪을 두고 그 안에는 瓦當의 中心部에서 본 것과 같은 突起體가 있다. 外區는 없다.

瓦當의 裏面을 보면 瓦當의 破損部가 瓦當의 上部임을 알 수 있다. 裏面의 周緣端部에서 약2cm 안쪽에 두께 약 7mm, 높이 1.5cm의 土堤狀隆起帶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隆起帶의 안쪽은 緣을 따라서 점점 심하게 닳아졌고, 外側도 닳아져 있다. 이 土堤狀隆起帶의 存在는 夢村土城의 東北地區에서 出土된 것으로 瓣端이 둥근 瓦當에 보이는 것과 같다. 裏面의 中央部는 손가락 끝으로 가볍게 눌러서 整形한 것같이 보인다. 胎土는 고운 砂粒을 混合하였다. 燒成은 良好하며 灰色이다. 지금도 封土속에서 이와같은 種類의 것과, 그와는 文樣이 다른 瓦當이 出土되고 있으나, 매우 작기때문에 여기에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石村洞4號古墳에서 出土된 古瓦에 대해서 日本에 처음으로 紹介한 사람은 當時 忠南大學校에 留學中이던 龜田修一氏였다.<sup>(4)</sup> 그러나 여전히 前掲한 夢村土城(東北地區)과 石村洞4號墳出土의 端丸瓦의 造瓦技法에 대해서 이들 資料에서는 밝히지 못하였다. 그렇지만 瓦當의 土堤狀隆起帶는 瓦當을 瓦型보다도 크게 만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造瓦技法의 하나로서 보아도 좋다고 생각한다.

이 石村洞4號墳出土의 瓦當에 관련하여 필자가 前에도 말한 바 있으나 다시 한번 간단히 言及해 보기로 한다. 그것은 藤澤一夫氏가 終戰時에 이것만을 다시 한 번 꼭 봐두겠다고 생각하여, 舊總督府博物館의 資料保管室에 들어가 風納里土城出土의 瓦當을 다시 보았다. 그것은 風納里土城에서 採集된 수많은 土器片에 섞인 한개의 圓瓦當으로, 風納里土城出土의 圓瓦當은 단 한개뿐이었다 한다. 藤澤氏가 관찰한 記憶에 바탕을 두고 내가 圖示한 적이 있다(圖 10). 氏에 의하면 小形의 黑色이 감도는 와당으로 外周緣은 素文의 直立形式이었다 한다. 여기에 掲載한 風納里土城의 瓦當推察圖와 石村洞4號墳出土의 圓瓦當文과를 비교하면, 모두 瓦當面을 四分劃하여 각각에 圓文을 배치한 構成은 서로 공통되는 点이라 본다. 원래 이 形式이 漢瓦나 樂浪郡跡出土 瓦當文을 踏襲한 것임은 말할 나위도 없다.<sup>(5)</sup>

### 3. 結 語

以前에 尹武炳氏가 서울特別市 廣壯洞과 淸潭洞에서 拾得한 周知의 瓦當 2개(以下 尹氏와당이 라 略稱함)는 지금까지 한국에서는 百濟 漢城時代의 것으로 알려져 왔고 종종 책에도 掲載되었었다. 그런데 近年에 와서 尹氏瓦當은 漢城時代보다도 年代가 下降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까지의

4) 龜田修一, 「百濟漢城時代の瓦に関する覺書—石村洞四號墳出土例を中心として」, 『尹武炳博士回甲紀念論叢』, pp. 552~553, 圖版1, 1984年 12月.

5) 井內功, 『서울特別市淸潭洞遺跡と出土瓦について』(井內古文化研究室報 19), p. 317. 昭和53年(1978) 4月. 井內功, 「戰後の韓國瓦磚研究略史(下)」, 插圖15, 月刊韓國文化 11月號, 1989年 11月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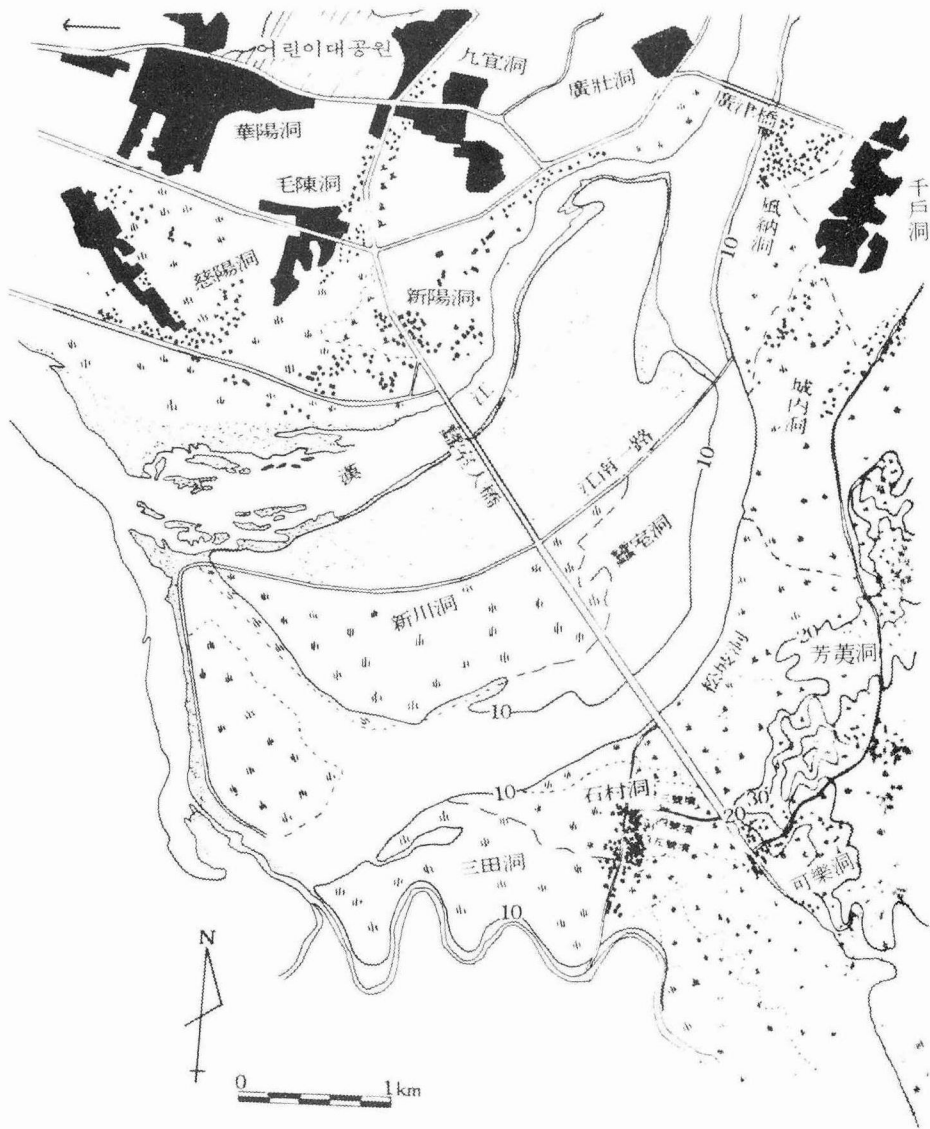
漢城時代說을 否定하는 것이 나오게 되었다. 필자는 아주 以前부터 否定說을 취했었던 사람이다.<sup>6)</sup>

여기에 이들의 瓦當의 表面과 裏面의 寫眞을 참고로 揭載하는데, 지금까지 發刊된 文獻이나 저술에는 裏面사진을 찾을 수가 없었다. 이 이면사진은 韓日國交再開後 時日이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當時 서울大學校에서 필자가 撮影한 것이다(圖 11).

尹氏가 發見한 2種의 円瓦當의 裏面은 모두 닳아서 整形되었는데, 이런 種類의 裏面은 日本의 飛鳥時代前期의 瓦當에서도 遺例가 있다. 그렇지만 廣壯洞出土의 円瓦當文이 三國新羅時代의 것임은, 現在까지 出土된 數多의 韓國瓦當文을 관찰해 온 우리들에 의해 否定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한편 淸潭洞出土(이 부근을 종래에는 三成洞이라 부름)의 瓦當에 관해서, 大和 豊浦寺에 이것과 같이 高구려 円瓦當을 직접 祖形으로 하고 있다고 보이는 瓦當이 있기에 形式的으로는 百濟 漢城時代로 여겨도 좋다고 생각한다.\* (尹玉範譯)

6) 井內功, 「戰後の韓國瓦塼研究略史(中)」 pp. 40-41, 月刊韓國文化 10月號, 1989年 10月과 위의 논문, pp. 135-3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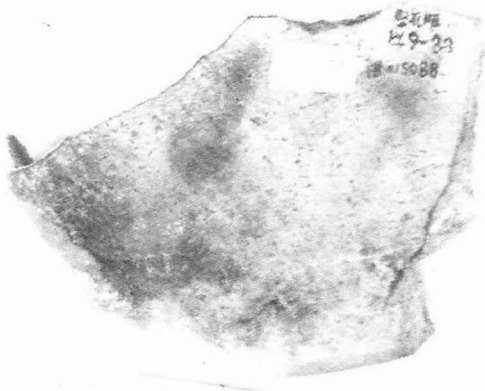
\* 本橋를 끝맺으면서 資料의 見學을 위해서 편의를 주신 金元龍博士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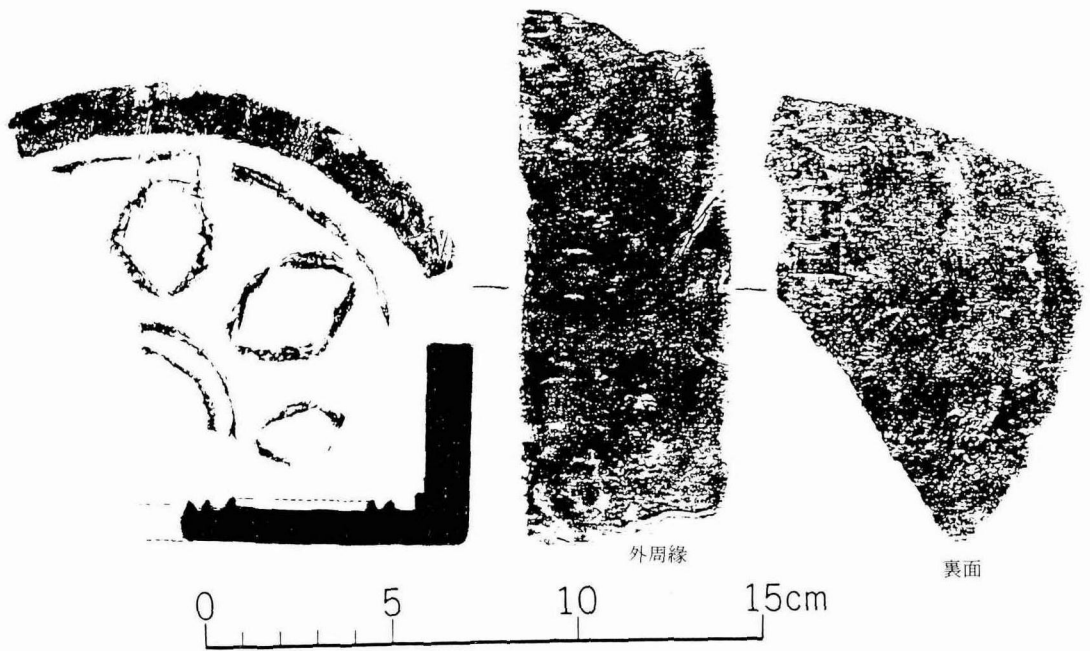
〈圖 1〉遺跡附近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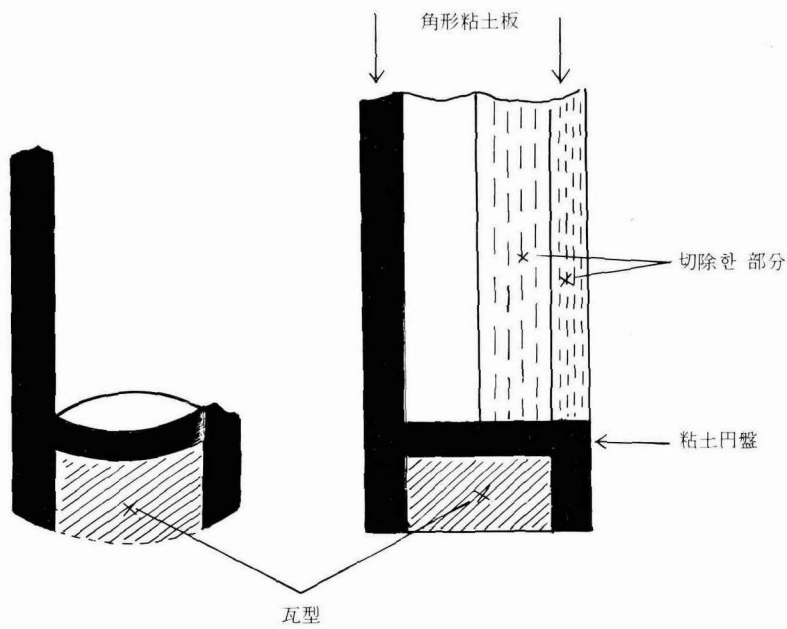
〈圖 2〉 夢村土城(東南地區出土 円瓦當(外周縁内面の 布目文).



〈圖 3〉 夢村土城(東南地區)出土 円瓦當  
(上:表面, 下:裏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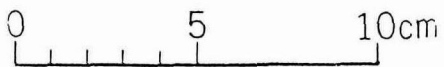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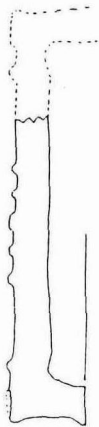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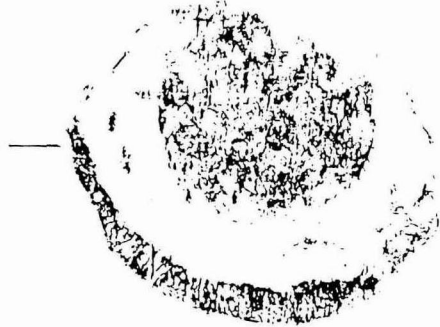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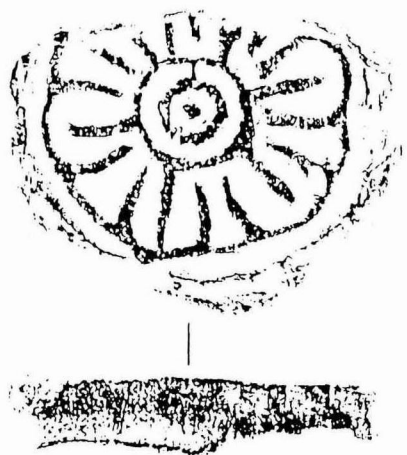
〈圖 4〉 夢村土城出土 瓦當의 實測圖와 拓本.



〈圖 5〉 端丸瓦製作推察圖(黑色은 殘存部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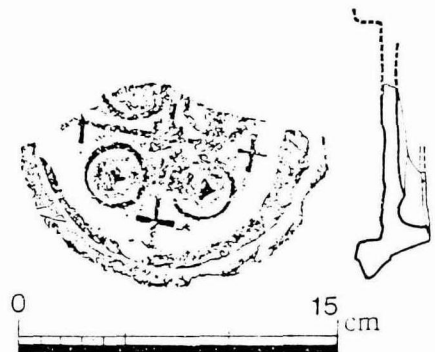
〈圖 6〉 夢村土城(東北地區)出土 瓦當  
(上：瓦當面，下：裏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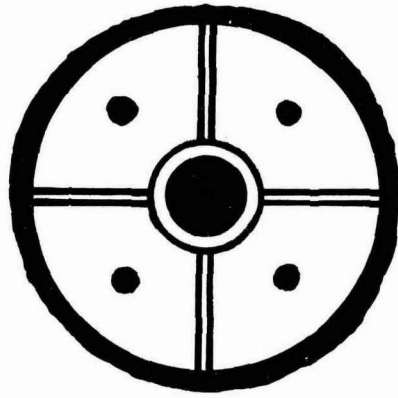
〈圖 7〉 夢村土城出土 瓦當拓影・實測圖(실측도는 「夢村土城(東北地區)發掘報告」에 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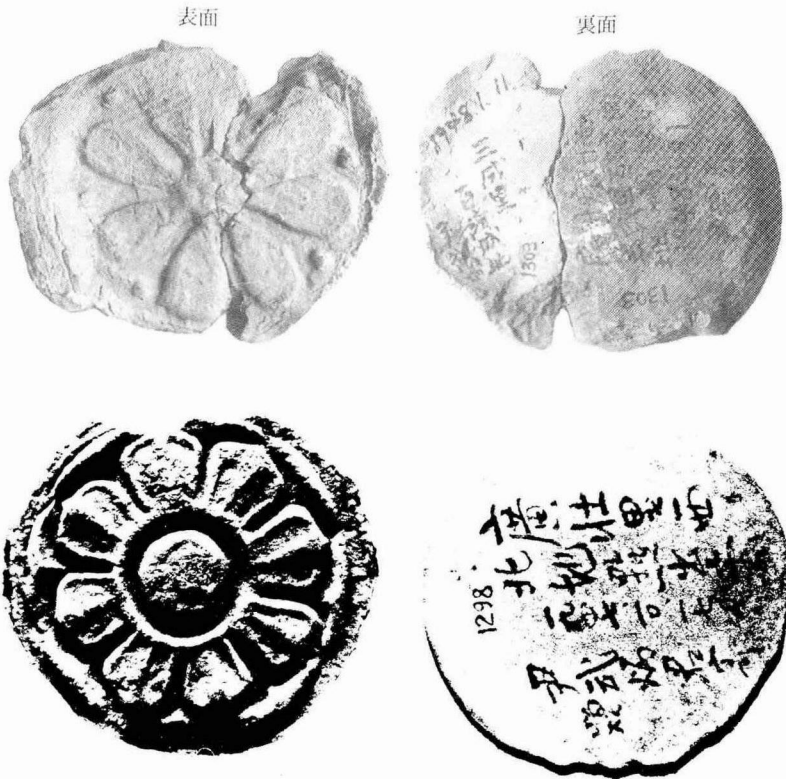
〈圖 8〉石村洞4號墳出土 瓦當(龜田修一氏撮影).



〈圖 9〉拓影・實測圖(「百濟漢城時代の瓦に関する覺書」所載).



〈圖 10〉風納里出土 圓瓦當.



〈圖 11〉尹氏瓦當(上：清潭洞出土 圓瓦當，下：廣壯洞出土 圓瓦當)，서울大學校藏.